

Vol. 115

2023년 09월
해사정책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 E L . 051-797-4800
- F A X .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선박의 신기술과 대체연료 사용으로 안전이 중요한 시대, 선원행복지수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 감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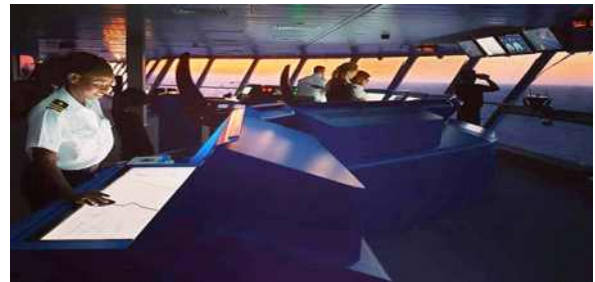
IMO, 2024년 세계해사의 날 테마로서 ‘미래 항해의 안전 최우선’으로 선정 ^{a)}

- ▶ 해운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동화 신기술과 대체연료 사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하는 사항은 안전 및 보안 강화와 해양환경 보호임
- 안전은 1948년에 기구가 수립된 이래로 모든 IMO의 활동에 가장 중점 사안이며 2024년은 IMO의 해사 안전을 규정하는 핵심적 협약인 SOLAS를 채택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미가 깊음
- 더불어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안전, 보안, 효율, 최적의 성능, 환경적 영향 감소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화하는 신기술 도입으로 해운의 혁신을 주도하며, 선박 설계, 건조 및 운항의 효율성을 증가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IMO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4 세계해사의 날(2024년 9월 26일) 테마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해양환경 보호와 해사안전·보안 강화의 IMO 노력을 반영한 ‘신기술과 대체연료 시대의 해사안전’을 선정
- 상기의 테마는 국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이 대체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궁극적인 안전 위험성 평가 및 해결을 위한 규정 개발을 포함한 IMO의 의욕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가속화를 장려함

〈그림 1〉 2024 세계해사의 날 테마, Navigating the future: safety first!



자료 : IMO



대체연료 추진선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필요 ^{b)}

- ▶ 해운선사, 대체연료 특징을 고려해 선원의 기술/비기술 능력, 정책적 지식, 직업적 건강에 대한 대응 필요
- 대체연료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선박의 보편적인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독성, 부식성, 인화성뿐만 아니라 압력 방출과 저온 압축에 관한 또 다른 위험성으로 선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
- 선원들은 구체적인 운항과 유지보수를 위한 신기술 능력 보유, 암모니아 위험성 인식, 비상 대응, 암모니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 독성·화재·소음 등 직업적 건강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요구됨

- 대체연료 사용 선박은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안전 및 환경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기존 연료 대비 선원과 같은 인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그림 2〉 암모니아 연료 사용에 대한 인적 요인 영향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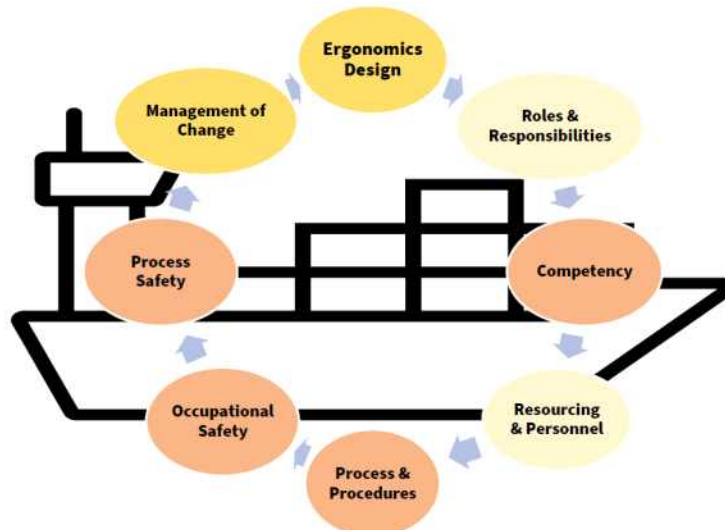


Figure 1 - Ratings of Human Factors impacts for Ammonia Fuel Use

Impact Key: ○ Low ○ Medium ○ High

자료 : L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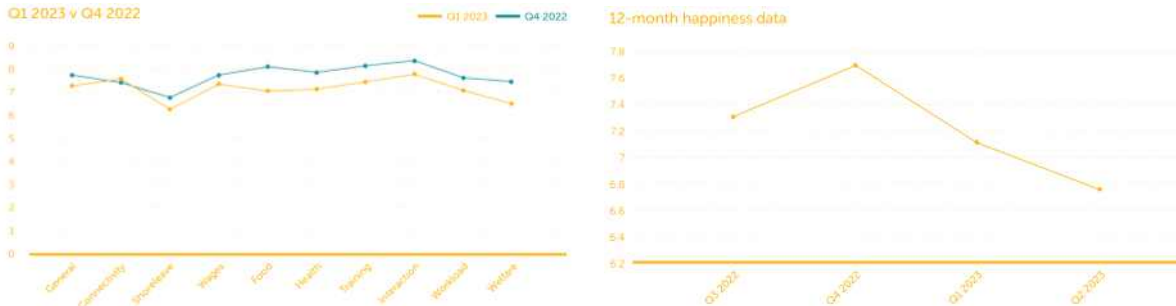
■ 선원행복지수, 2022년 4분기부터 7.69 → 7.1 → 6.77로 지속 감소 c),d),e)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함께 선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미흡으로 선원행복지수 감소 추세

- 코로나19 팬데믹은 선원 교대 지연, 승선시간 연장,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와 임금 하락을 포함해 선원에게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눈에 띄게 악화시킴
- 현재 팬데믹에서 벗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선원교대가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승선기간 연장, 계약 변경, 보수 문제, 임금 미지급 및 삭감, 세금 인상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선원의 복지 및 고용 수준은 하향 평준화된 것이 선원의 직업적 선호도가 감소하는 원인임
- 2022년 4분기의 평균적인 선원행복지수¹⁾는 10점 만점에 7.69점이었으며, 이후 2023년 1분기 7.1점과 2분기 6.77점으로 조사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도 2분기 선원행복지수는 모든 질문 카테고리에서 하락한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작업량, 육상과 접근성, 교육 및 훈련, 선원 간 상호작용, 임금 및 급여 부분이 하락치가 높은 것을 확인함

1) 선원행복지수(SHI: The Seafarers Happiness Index)는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의 감정을 측정하는 분기별 조사이며, 해당 조사는 선원의 생활과 작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10가지 질문이 포함됨

〈그림 3〉 선원행복지수 비교(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자료 : The Mission to Seafarers

▶ 코로나19 팬데믹 시 전 세계 물류에 기여했던 선원의 기여도에 적합한 근무시간, 교육, 급여 등을 개선으로 근무환경 상향 평준화가 요구됨

- 조사에 참여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상 업무량에 대해 행정, 서류 작업, 관료주의에 대해 토로하였으며, 공통적인 사항은 해사노동협약(MLC) 규정을 초과하는 수준인 1일당 2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임
- 선원들은 중복된 보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도한 업무시간은 당직 근무에 어려움을 줌
- 또한, 교육자료, 예정된 훈련 및 안전 캠페인의 실제적인 이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선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회사의 서면 절차와 실제적인 이행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선원의 안전, 준비 및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훈련 및 친숙화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함
- 더불어 선원들은 현재 임금이 그들이 직면한 책임과 도전과제에 일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선원들이 업계에 기여한 것에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절한 급여 조정의 필요성 강조

■ 영국·프랑스·뉴질랜드,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산업계 의견 기반 이니셔티브 추진 ^{e),f)}

▶ 영국과 프랑스, 선원을 포함한 선상 근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헌장 개발

- 영국 정부는 7월 24일 새로운 선원 헌장을 통해 수천 명의 선원이 공평한 임금, 적절한 휴식기간과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의 유사한 계획과 함께 출범할 예정임
- 해당 헌장은 주로 선원의 고용 보호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사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원임금법의 범위인 선박에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선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발됨
- 헌장은 기본 시급 최소 1.25배 인상, 적절한 훈련 제공, 완전히 무기한의 계약 제공, 질병·가족수당과 의료 지원, 피로도, 정신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근무패턴 등을 고용주에게 요구함
- 향후 영국은 선상 근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프랑스와 더불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며, 영국 해운회의소 등 일부 산업계는 선원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환영함

➤ 뉴질랜드 해사청은 선원 복지기금에 대한 의무적인 부담금 사용 옵션에 대한 공식적 검토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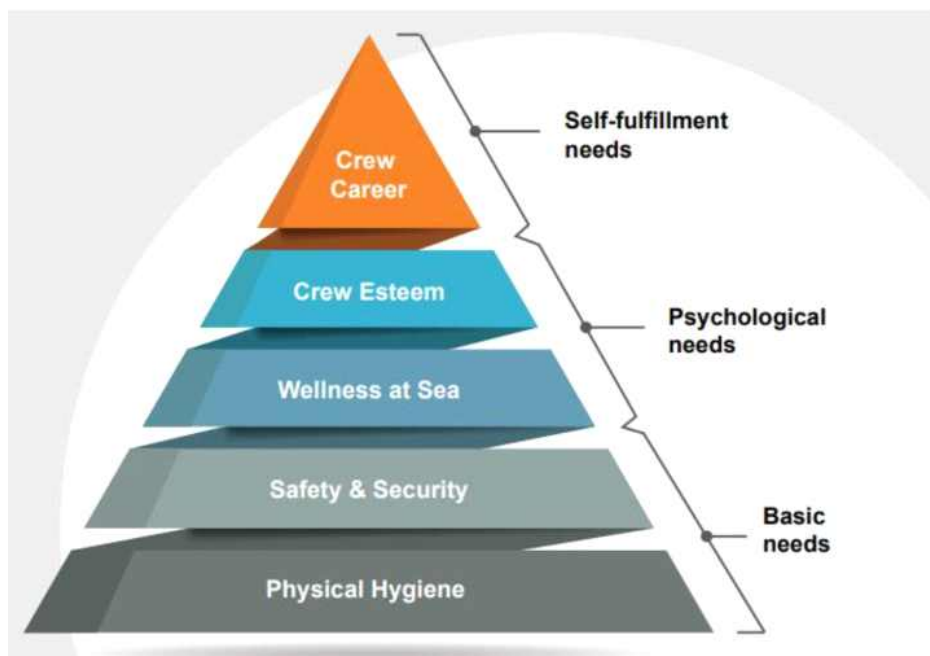
- 뉴질랜드 해사청은 2019년 이래로 뉴질랜드 선원 복지 이사회(SWB: Nea Zealand Seafarer Welfare Board), 복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영국 비영리단체인 해상 인권(HRAS: Human Rights at Sea)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복지 기금 메커니즘에 변화를 강구해왔음
- 2021년 3월 해사부담금이 선원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해사부담금법(maritime levy laws)을 개정하였으며, 뉴질랜드 해사청은 공식적인 컨설팅('23.7.19~8.16.)을 통해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해사부담금과 유류오염부담금 인상에 대한 의견과 기회를 구함

■ 선박 안전의 핵심인 선원, 웰빙을 위한 복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g),h),i)}

➤ 해운국이자 선원국인 대한민국은 웰빙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통해 직업적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선원은 선내 거주환경에서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며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선상에서 기본적인, 심리적 요구사항 충족²⁾은 필수적인 부분임
- 선원의 요구사항 중 물리적인 위생사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에서 다루는 사항이며,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ILO뿐만 아니라 IMO의 코드에 의해 해결됨
- 그러나 해상에서의 웰빙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지적 부분의 우선순위 해결이 필요하며,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와 선원 경력에 대한 성취감 확보 등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사항임

〈그림 4〉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에 기반한 선원의 요구사항



자료 : SAFETY4SEA

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의 동기에 있어 생리, 안전, 애정 및 공감,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에 따라 작용하며, 하위욕구 충족 시 상위욕구가 발생하며, 단계별 욕구 미충족으로 인한 긴장으로 행동적 동기가 나타날 수 있음

- 국적선사의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청년 해기사들의 승선 기피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국적선원 이탈방지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복지보다 기업 중심의 임금 증가, 고용 보장, 진급 기회 확대, 원활한 교대, 승선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복지 강화 필요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 자료

- a) IMO,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World-Maritime-Theme-2024.aspx> (검색일: 2023.08.23.)
- b) LR·Maersk Mc-Kinney Moller Center for Zero Carbon Shipping,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Ammonia Fuel End-of-Stage Report, 2023.08.
- c) The Mission to Seafarers, Seafarers Happiness Index Quarter 4 2022 and Annual Review
- d) The Mission to Seafarers, Seafarers Happiness Index Quarter 1 2023 and Annual Review
- e)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Seafarers' Charter: Detailed Requirements, 2023.7.
- f) SAFETY4SEA, <https://safety4sea.com/new-zealand-looks-at-levy-options-to-fund-seafarer-welfare/> (검색일: 2023.08.24.)
- g) SAFETY4SEA, <https://safety4sea.com/cm-seafarers-wellbeing-comes-first-a-hierarchy-of-seafarers-needs/> (검색일: 2023.08.24.)
- h) 매일경제, http://teen.mk.co.kr/economy/economy01_01_view.php?c1=2&c2=8&c3=14&idx=443 (검색일: 2023.08.24.)
- i) 해양수산부, 2023년도 선원정책 시행계획, 2023.02